

하늘사랑

2019. May 5

www.kma.go.kr **Vol. 455**

특집
제8회 생기발랄 캘리그라피 공모전

포커스 뉴스
기후모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CEDS

열린마당
우당탕탕! 삼형제와 제주살이

기상청

Fina
WATER IS OUR WORLD

The 18th FINA WORLD CHAMPIONSHIPS

GWANGJU 2019
Fina WORLD CHAMPIONSHIPS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19.7.12. - 7.28. (17일간)

www.gwangju2019.com

Official FINA Partners

Nikon Yakult arena Myrtha Pools OMEGA SAMSUNG

National Sponsors

kt 광주은행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stitutional Partners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여수시 YEOSU CITY 사단법인 대한수영연맹 KOREA SWIMMING FEDERATION

하늘사랑

2019 May Vol. 455 2019년 5월호(통권 455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54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19년 5월 10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김종석 **편집장** 임덕빈 **편집기획** 오철규 김혜정 조아라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MA Special Issue

포커스 뉴스
기후모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CEDS · 02
기상기업 시장 동향과 지원사업 효과 분석 · 04

특집
제8회 생기발랄 캘리그라피 공모전
기후 시그널 8.5 · 06

KMA About

열린마당
우당탕탕! 삼형제와 제주살이 · 08
항공교통통제센터에 오다! · 10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는
'우유니 소금사막' · 12
나를 찾아가는 시간들 · 14
자유여행 vs 패키지여행 · 16

KMA 날씨 +

날씨 + Story 변덕스러운 산악 날씨
날씨에 따른 등산 준비는 이렇게! · 18
날씨 + Book 죽음의 수용소에서 · 20
날씨 + 여행 어서 와,
이탈리아는 처음이지? · 22
날씨 + 현장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모바일기상관측차량' · 24
날씨 + 에세이 꽃은 과정으로 피어난다 · 26

KMA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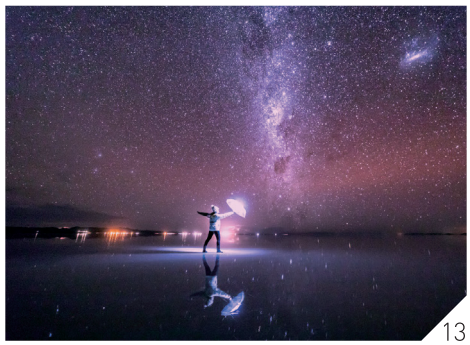
포토 브리핑 · 28
오늘 당신의 날씨 · 30
포토 에세이 · 32



May



07


13


23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or.kr**

기후모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 CEDS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과

기후변화의 예측을 위해 수행되는 다양한 실험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 데이터가 산출된다. 이렇게 산출된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기후모델자료 통합관리시스템(CEDS)'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월마트에서 맥주와 기저귀를 함께 판 이유

미국의 월마트는 고객의 구매내역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맥주와 기저귀가 함께 팔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이 둘의 연관성은 무엇일까? 바로 남편들이 아내의 심부름으로 마트에 들려 기저귀를 사면서 보상심리로 맥주도 같이 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월마트는 기저귀와 맥주를 묶어 팔기 시작했고 매출은 폭증했다. 이후 고객의 구매내역이나 날씨 등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판매량을 예측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영업 전략 수립이나 물류 관리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구매내역이라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는 단순히 매출에만 집중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내역의 분류와 통계 등의 관리를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낸다. 기상기후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후모델자료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요소가 필수다.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어 내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바로 데이터이며,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모델자료 관리를 위한 시스템, CEDS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기후변화의 예측을 위해 기후 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대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에 여러 연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더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의 생산 및 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제공되어야 하며, 자료의 활용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 관리를 위해서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기후모델자료 통합관리시스템(CEDS, Climate & Environment Data System)을 구축하게 되었다. CEDS는 40PB의 대용량 스토리지를 연계하여 여러 실험

을 통해 산출되는 많은 기후모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한다. 1PB(페타바이트)는 1TB(테라바이트) 용량의 하드디스크 1,024개를 모아 둔 양으로 볼 수 있으니, 40PB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짐작할 수 있다. CEDS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일 외에도 국제표준자료변환 과정과 품질 보증 단계를 연동하여 그 결과를 저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용자를 배려한 쉬운 사용법을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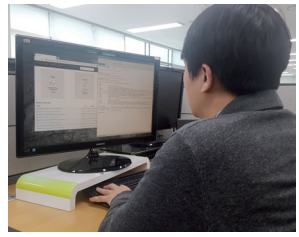
CEDS는 간편한 명령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용자도 쉽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쉬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자료에 대한 활용도를 높였다. 더불어 필요한 파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검색엔진을 추가하여 기능을 향상시켰다. 또한, 파일에 대한 메타정보를 함께 저장해 좀 더 정확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스템에 부하 균형을 위한 분산 병렬화를 적용하였다.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접근 시에도 빠른 응답이 가능하며 고가용성 갖게 되어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이 있는 CEDS의 사용으로 저장 공간의 낭비를 줄이고, 자료의 재활용으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앞으로 CEDS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손쉽게 획득하고 연구에 활용하여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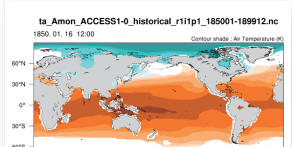
CEDS 스토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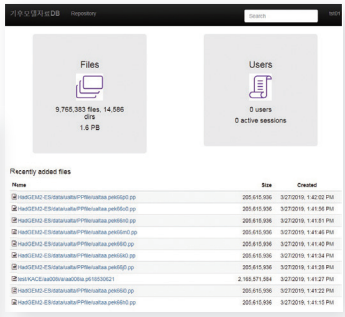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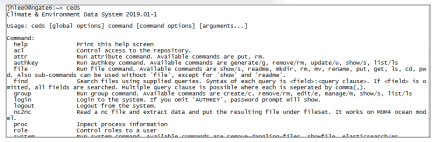
CEDS 활용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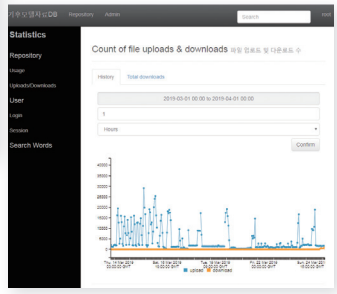


CEDS 다양한 활용









기상기업 시장 동향과
지원사업 효과 분석

기상서비스진흥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에 따른 위험 증가로 기상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기상기후산업 및 기상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기상청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후산업 육성을 위해 R&D 지원은 물론 기상기업 성장지원센터 지원, 금융 지원, 수출 지원 등 다양한 기상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기상기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산업 실태조사 분석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후산업 이슈페이퍼를 분기별로 발간해 기상기후산업 현안 과제 분석, 선진국 시장 동향, 기상기업 지원 사업 효과성 분석 등 기상산업 실태를 조사하여 기상기후산업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기상기업 시장 동향 및 지원 사업 효과 분석을 위해 「기상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기상산업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424001호)를 기반으로 기상등록기업(이하 '기상기업')의 통계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를 통해 기상기업의 시장구조, 매출액 등 변화 추이 분석,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상기업과 미참여 기상기업 간 비교 등을 분석했다. 기상산업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량적인 효과성 분석을 통해 기상기업의 역량을 제고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향후 기상산업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기상기업 시장 동향

기상기업은 확대되는 추세('15년 320개→'17년 455개, 42.2% 증가)이며, 주로 기상장비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기상기업 확대에 따라 기상기업 매출액 역시 증가('15년 1,382억 원→'17년 1,786억 원, 29.3%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 대비 기상장비 부문 매출액은 70%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15년 대비 '17년 매출액은 24.6% 증가('15년 1,009억 원→'17년 1,257억 원)했다. 기상서비스 부문 매출액은 기상장비 부문 성장률(24.6%)보다 높은 성장률인 42.0%로 성장('15년 373억 원→'17년 529억 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상장비와 기상서비스 부문 모두 기상기업 증가율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이 낮아 평균 매출액이 각각 8.7%, 13.5% 감소했다.



그림1 . 연도별 기상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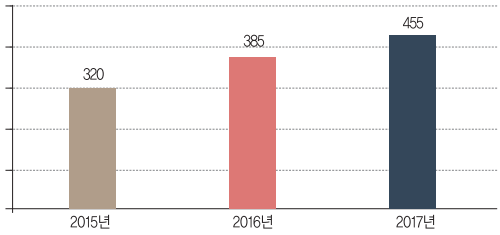


그림2 . 연도별 기상기업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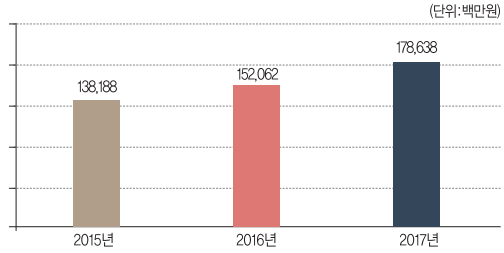


그림3. 연도별 기상기업 매출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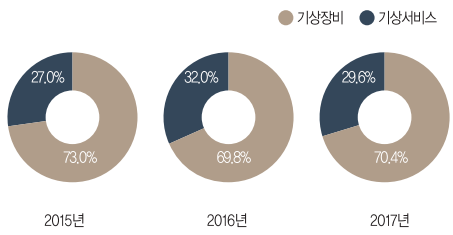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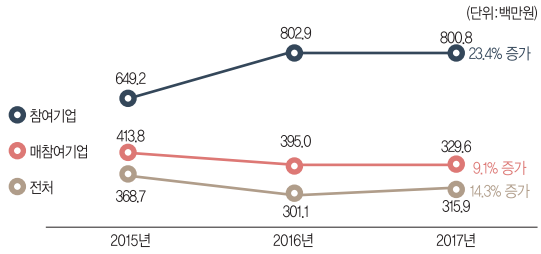


그림4. 기상기업 평균 매출액 비교



기상기업 지원사업 효과성 분석

기상기업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위해 최근 5년 이내에 기상기업 지원사업(성장지원센터, 종합수출 지원, R&D 등)에 참여한 기업 72개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했다.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매출액은 '15년 대비 23.4% 증가('15년 467.42억 원→'17년 576.54억 원)한 것으로 보아 지원사업이 기상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기업의 수익성을 비교해보면,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미참여 기업·전체기업 보다 약 1.5~2.7배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기업 지원사업의 활성화

이처럼 기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나, 참여기업은 아직 72개사로 전체 기상기업('17년 기준 455개)의 약 16%의 낮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다. 이에 참여기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기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더욱 활성화된 지원사업을 통해 기상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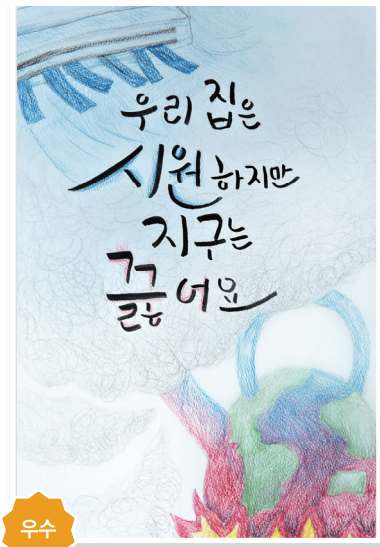
기후 시그널 8.5

부산지방기상청에서는 세계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을 주제로 하여 캘리그라피 공모전을 개최했다.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총 344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1차 예선을 거쳐 2차 본선 심사를 통해 2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아름다운 캘리그라피로 표현한 수상작을 만나보자.

초등학교 공모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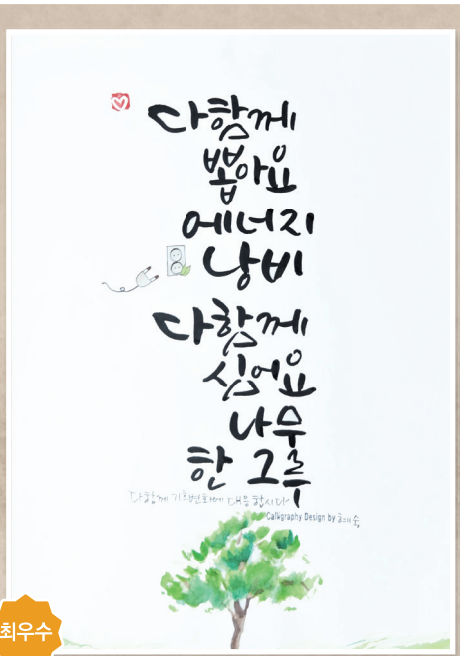


최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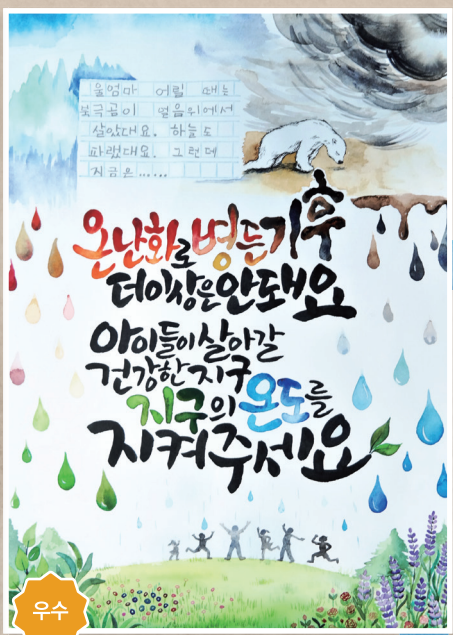


우수

일반부 공모전 수상작



최우수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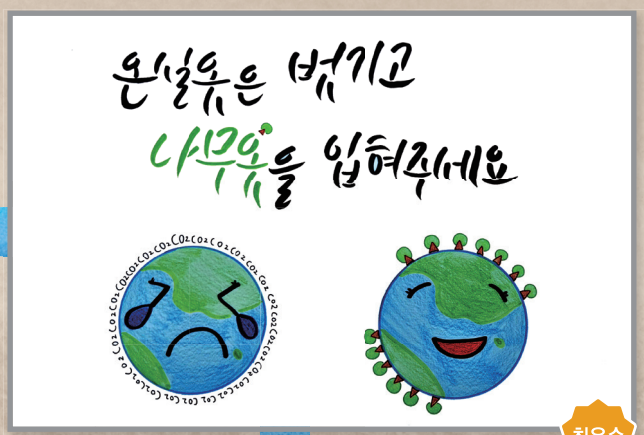
생활 속 기후변화 캘리그라피로 알려요!



조민희
당산중학교
중 · 고등부 최우수

저는 평소에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캘리그라피를 배우기 전에도 붓펜과 지그펜으로 자유롭게 글씨 쓰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캘리그라피 전문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학원에 다니면서 글씨체도 정말 예뻐졌고, 먹물과 붓으로 연습을 하며 서예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생기발랄 캘리그라피 공모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온실가스를 주제로 하고 싶었고 '온실가스는 답답해요.', '지구를 온실에 가두지 말아주세요.'와 '온실 옷은 벗기고 나무 옷을 입혀주세요.'를 생각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손글씨로 써보고 가장 예쁘다고 느껴지고, 가장 긍정문으로 쓰인 표현이 마음에 들어 '온실 옷은 벗기고 나무 옷을 입혀주세요.'로 작품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 작품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좋은 작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연습할 것입니다.

중 · 고등학교
공모전 수상작



최우수



우수

우당탕탕! 삼형제와 제주살이



"일어나~ 어린이집 가야지~ 학교 가야지!" 오늘도 잠꾸러기 삼형제를 깨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안아서 일으켜 세워 어르고 달래야만 일어나는 3살짜리 막내를 깨워 부랴부랴 옷을 입히고, 차에 태워 어린이집으로, 초등학교로 아이들을 내려주고 출근하면, 책상에 앉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온다.





박수정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제주살이의 시작

제주도에 내려와 이렇게 폭풍처럼 지나가는 아침 시간을 보낸 지도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갔다. 여름의 끝자락에 삼형제와 제주살이를 시작하여 가을, 겨울을 지내고 이제 제주도의 봄을 처음으로 느끼고 있다. 봄의 따스한 햇살을 느낄 때마다 작년 여름에 제주도 바다를 맘껏 느끼지 못했기에, 올해는 6월부터 삼형제와 함께 바닷가에서 살리라 마음먹는다. 늦여름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 가족에게 제주도의 가을은 갈대의 계절이었다. 어디를 가든 바람에 흔들리는 은빛 물결을 보여주었다. 나에게 갈대는 제주도의 낭만이었고, 아름다움이었지만, 삼형제에겐 칼싸움하는 하나의 도구로밖에 취급받지 못한 안타까운 갈대였다.

제주도의 겨울은 눈썰매

제주도의 겨울은 햇살은 따스하나 바람이 매서워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지 많은 고민을 했었다.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삼형제의 활동성을 어떻게 풀어줘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제주도에 눈이 온 날 눈썰매를 사서 한라산 중턱 아무도 없는 언덕길에서 썰매를 탔다. 언덕 위에서 굴러서 내려오면서도 신나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나 또한 아이들과 같이 눈썰매를 타다 고개를 들어 보니 환하게 밝아오는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가 제주도고 제주도가 아니면 이런 풍경을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다. 한번 눈썰매의 재미를 맛본 아이들은 매일 눈이 오길 빌었으나,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 눈이 적어 썰매를 탄 날이 별로 없었다. 이마저도 12월의 마지막 날 눈썰매를 타다 첫째 아이가 다치는 바람에 올해의 눈썰매는 끝나 버렸다.



삼형제 체력고갈 프로젝트

제주도에 많은 오름이 있지만, 아직 새별오름밖에 정복하지 못한 우리 삼형제는 겨울이지만 바람이 불지 않을 땐 관사 옆 사라봉을 자주 올라갔다. 사라봉 주변은 제주 올레길과도 연결되어 있어 산책하기에도 좋은 코스이다. 또한, 제주항이며, 한라산이며, 넓은 제주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풍경을 지녔다. 하지만 나에겐 이런 경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아들들의 체력고갈을 목표로 올라간다. 작년 가을에도 오름을 오르고 싶었으나, 어린 막내를 업고 오르기에는 선뜻 발걸음이 향하지 않았다. 하지만, 봄이 다가오면서 올해에는 사라봉을 벗어나 제주도의 다양한 오름에 도전해 보고자 마음을 먹는다.

어느새 제주도 곳곳에 다양한 꽃들이 눈길을 사로잡은 것을 보면 봄이 생각지도 못하게 성큼 다가와 있었나 보다. 봄이 더 지나가기 전에 호미, 괭이질 좋아하는 삼형제에게 관사 옆 작은 텃밭을 일구게 해야겠다. 이 또한, 삼형제의 체력고갈이 주된 이유이나, 여름이 되면 텃밭이 풍성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하는 행복한 상상을 혼자 해보게 된다.

건강하고 씩씩한 삼형제의 제주살이

처음 제주도에 아이 셋을 데리고 내려간다고 했을 땐 주변에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고 나 또한 '아이들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란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나 걱정보다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과 주변의 배려 덕분에 제주살이가 점차 행복으로 다가오고 있다. 오늘도 삼형제 깨우기부터 시작하는 바쁜 일상이지만, 넷이어서 힘이 나고 넷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제주살이를 하고 있다.

항공교통통제센터에 오다!

2018년 항공기상청의 경력경쟁채용에 합격한 후 올해 3월 1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비록 2년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기상청 입사! 그곳에서의 이야기를 써보고자 한다.



기상청 근무를 꿈꾸다

기상 분야에 관심을 가진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기상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과학적 근거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부분에서 큰 매력을 느껴 기상학 전공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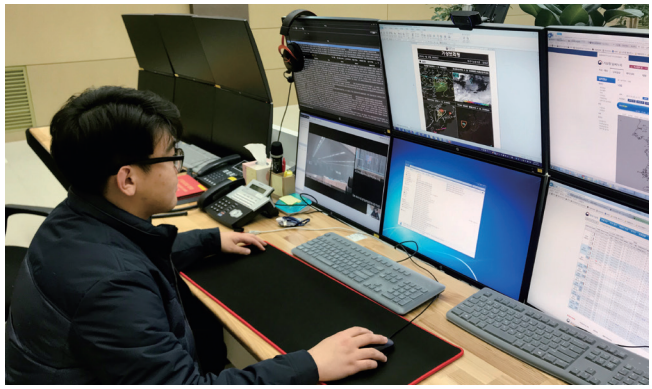
기상학과에 진학을 하고 나서는 무엇보다 기상예보를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상예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해보았다. 기상예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은 기상청과 공군 기상대가 있었다. 신체 건강한 내가 반드시 가야 하는 군대, 기상예보를 경험해볼 수 있는 공군으로 갔다. 3년간 청주공항에서 기상장교로서 항공기상예보를 생산·지원하면서 기상예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항공 분야에서의 기상은 아무나 쉽사리 접해보지 못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드디어 항공기상청에 입사하다

전역을 하고 나서는 좀처럼 기상을 다시 접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저런 도전을 하다가 작년 항공기상청에서 실시한 채용을 통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첫 일주일간은 인천에 있는 항공기상청 본부에서 교육을 받았다. 선임자들의 친절한 교육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던 부분과 다른 부분 그리고 전혀 몰랐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 또한, 항공기상청 아침 브리핑과 기상청 오후 전체 브리핑에 매일 참석했다. 그동안 꼭 보고 싶었던 예보 브리핑에 참석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이곳에 내려와서도 빠짐없이 예보브리핑에 참석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항공기상청 본부 교육을 끝내고 이곳 대구에 위치한 항공교통통제센터로 오게 되었다.



육경민
항공기상청 관측예보과









내 역할은 국내외 공항 및 공역 기상정보 지원

내가 근무하는 곳은 항공교통통제센터(ATCC; Air Traffic Command Center)다. 항공교통통제센터는 인천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한 항공교통과 위험기상이 발생하는 항공로에 제한사항을 두어 항공기 운항 간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곳에서 나는 기상지원 업무를 맡았다. 인천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저시정, 윈드시어, 난기류, 뇌우 등과 같은 위험기상을 항공교통통제센터의 흐름관리사를 비롯해 지역관제사, 항공사, 공항공사 등에 지원하여 항공기의 원활한 운항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상지원과 항공기안전 운항

이곳에서의 기상지원은 내가 경험했었던 기존의 기상지원과는 사뭇 달랐다. 청주공항에서 근무를 할 때는 공항 예보구역, 그리고 전투기가 임무하는 국내의 훈련 공역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기상지원을 했었다. 하지만 이곳은 인천 비행정보구역에 대한 기상정보뿐만 아니라 국내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과 항공로에 대해서 기상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곳에서의 적응이 조금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지내보니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다. 내가 제공하는 기상정보들이 항공기들의 안전한 운항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근무하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야겠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는 '우유니 소금사막'



어릴 때부터 여행을 좋아했던 내게, 여행지 중 단연 눈에 띈 우유니 소금사막! 첫눈에 반해버린 이곳은 서른 전에 꼭 가야 할 나의 여행 버킷리스트 1위였다. 나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다가온 서른! 현실의 벽에 부딪혀 고민만 하던 중, 주변 분들의 열띤 응원 속에 나 홀로 소금사막을 보기 위해 남미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서희정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낮에도 밤에도 예쁜, 우유니는 사랑입니다

우유니 소금사막은 볼리비아 포토시주의 우유니 서쪽 끝에 있는 소금으로 뒤덮인 사막이다. 사막의 면적은 전라남도와 비슷하며, 해발고도가 3,653m, 한 걸음 한 걸음 헉헉거리게 만드는 고산지대이다. 안데스산맥의 융기 과정에서 솟아오른 바다가 빙하기를 거쳐 다시 녹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에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졌는데, 비가 적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물은 모두 증발하고 소금 결정만 남아 형성되었다. 우기에는 물이 고여 얕은 호수가 만들어지는데, 낮에는 강렬한 햇살에 하늘과 구름이 호수에 반사되어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지며, 밤에는 은하수와 별들이 호수에 반영되어 여기가 우주인가를 논할 만큼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준다.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라랄랄라~♬

소금사막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유니 시내에 있는 투어사에 투어를 신청하여 팀을 꾸리고 드라이버와 함께 나가야 한다. 투어는 데이, 선셋, 스타라이트, 선라이즈 투어 등이 있는데, 두 개의 투어를 묶어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3박 4일 동안 데이+선셋 1번, 스타+선라 1번, 선셋+스타 2번을 하고 왔다. 가장 좋았던 투어를 꼽자면 선셋+스타이다. 16시부터 22시까지 진행하는 이 투어는 우유니 사막의 낮과 밤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다. 사막에 도착 후 물에 반영된 사진을 찍고 놀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 선셋을 보게 되고, 차에 들어가 잠시 휴식을 취하다 나오면 우주로 순간이동을 하게 된다. 차가운 물 속에 발을 담그고 사막의 칼바람을 맞으니 온몸이 꽁꽁 얼어 감기 걸리기 딱 좋았지만 은하수와 수많은 별이 내 눈앞에 쏟아지는 광경을 보고 있으면 추위도 잊고 감탄사만 연발하게 된다.











찰칵찰칵 내가 모델이라니

요즘은 여행지에서 스냅사진을 찍어주는 작가들이 많다. 우유니 역시 한국 사진작가들이 스냅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카메라와 렌즈 3개, 삼각대, 각종 촬영 소품까지 챙겨갔기에 스냅사진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혼자 여행을 다녀보니 내 사진이 없었다. 어쩌면 내 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는 우유니에서는 내 사진을 남기고 싶어 스냅사진을 신청했다. 처음으로 모델이 되어 다소 어색하고 민망했다. 돌고 돌아 결국 1번 포즈를 다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지금 생각하니 좀 더 강렬하고 재미있는 포즈를 많이 할 걸 그랬다. 다음에는 잘해야지!

자칭 우유니 홍보대사!

우유니를 다녀오고 자칭 우유니 홍보대사가 되었다. 남미여행 후기를 들려줄 때마다 마무리는 "우유니에 꼭 가보세요."라고 말한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유니의 아름다움을 누군가와 맞장구치고 싶다. 하지만 남미는 마음먹고 떠나기도 힘들고 도착해서도 힘든 곳이다. 준비할 것도 많았고, 직항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거쳐 20시간 넘게 비행을 해야 했다. 페루에 도착해서는 고산병에 끙끙 앓는가 하면, 치안이 좋지 않아 신경이 곤두선 채로 돌아다녀서 체력이 금방 바닥나 버리기도 했다. 이렇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우유니라면 누구나 한 번쯤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추천하고 싶다.

나를 찾아가는 시간들

전국 구석구석을 다니며 기상교육에 전념했던 내가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느낄 때쯤 다시 생각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돌아가자.' 굳은 결심으로 마침내 국가기상위성센터로 오게 되었으나, 알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며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바쁜 나날들, 위성센터에 오기까지

쉴 새 없이 바빴다.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앞으로의 일들이 머릿속을 꽉 채워 내 생각을 조여 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내 인생에 있어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들이 아니었는데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쓰는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불과 1년 전 이맘때의 내 얘기다. '전문 강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전국 각지를 돌며 공무원 대상의 찾아가는 기상교육을 다니고, 전국 구석구석에 있는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 평일의 대부분을 출장으로 보냈다. 행사가 있는 날이면 주말에도 트럭을 펼치고, 접고, 사다리를 내리고, 올리고. 비를 맞고, 진흙탕에 발이 빠져가며 장갑을 끼고 트럭 철수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상교육 하나하나가 지닌 의미는 컸으나, 잦은 출장은 나에겐 버거운 일이었다. 그런 일정 속에서 두 달간 시간을 내어 작성한 6번째 이력서, 여름휴가와 맞바꾼 마지막 6번째 면접에 합격해 지금 여기,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국가기상위성센터에 오게 되었다.

마침내 누리게 된 고요함과 평화

정말 평화로웠다. 외로울 정도의 고요함과 평화였다. 처음엔 이러한 적막함을 견디지 못해, 바깥으로 쏘다녔다. 텅 빈 가슴이 되어 갈 바를 모르고 헤매다 공원 하나를 발견했다. 한 바퀴를 다 돌아도 200m밖에 되지 않는, 낮은 언덕 뒤에 숨겨진 작은 공원이었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걸음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다가왔다. 귓속을 꽉 채우는 음악을 들으며 걷기 시작했을 땐 꼭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산을 오르는 것 같았다. 시원했다. 아무리 걸어도 계속해서 걷고 싶었다. 전화를 걸어 별 것 아닌 일들을 쏟아내며 하루 중 가장 긴 대화를 했다. 그렇게 전화가 끊기면, 눈앞에 있던 신기루가 사라지듯 방금 통화가 원래 없었던 것처럼 다시 고독과 외로움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김은진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고요함과 평화가 가져다주는 잔잔한 행복은 정말 살면서 누리기 힘든 값진 시간들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으며 운동장을 돌 땐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엉켜 있는 생각이 정리되고, 가슴이 저며 오는 아픈 일들도 멀리 사라지며 가슴 속에 쌓여 있던 답답함과 슬픔을 씻어낼 수 있는 시간 또한 허락되었다. 그 자그마한 동네에서 내 삶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 보낼 수 있었다. 함께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일체의 생각, 마음을 내려놓고 20년 넘게 방치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주어진 것이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불편해하는지,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나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

소중한 시간들

일에 대해 진정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동료들 속에서 생각을 집중하고 오히려 인생의 활력을 얻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동경하는 하늘, 구름, 비, 바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연구할 수 있는 곳. 그러한 연구들이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 하는 일이라는 것. 또한, 직장 내에서 그토록 원했던 음악과 관련된 취미생활과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위성센터에서의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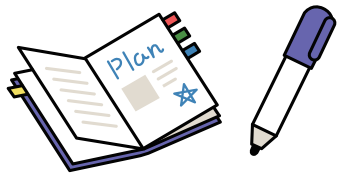
자유여행 VS 패키지여행

해외여행을 국내여행만큼 쉽게 다녀올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풀기 힘든 고민 하나가 있다. 이번 해외여행은 자유여행을 할까? 패키지여행을 할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내가 다녀온 해외여행을 되짚어보고 해외여행 스타일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었다.





박혜자
수치모델링센터 미래수치기술팀



나의 해외여행은?

나의 해외여행 경력은 어언 20년. 해외여행 중 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 딱 반반씩 다녀왔다. 상황이 딱 좋다. 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의 비율이 동일하니 각 여행 스타일의 장단점을 살펴보기에 좋은 상황이다. 먼저 여행 준비단계에서 비교해 보자.

준비단계

자유여행은 여행 가기 전부터 여행 모드로 내 일상이 전환된다. 볼거리, 먹거리, 교통정보, 숙박 시설 등을 공부하고 예약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여행에 대한 설렘과 기대이기도 한 반면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과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귀찮은 일이기도 하다. 또한, 여행지에 대한 공부가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일 수도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반면, 패키지여행은 여행 상품을 알아보고 예약을 하면 끝이다. 여행상품을 알아보는 노력 정도만 들이면 여행지에서 보고, 먹고, 이동하고 자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해결된다. 여행지에 대한 예습은 굳이 필요 없다. 가이드 분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현지인만 알 수 있는 정보는 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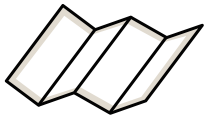
여행단계

다음으로 여행지다. 자유여행은 미리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열심히 다닌다. 아는 만큼 보이기에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동방법 또한 미리미리 잘 알아봐야 당황하지 않고 여행을 다닐 수 있다. 가는 곳마다 입장 대기에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은 늘 존재하기에 긴장의 연속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머무를 수도 있으며, 상황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기도 하고, 현지 맛집을 탐방할 수도 있다. 이것이 자유여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패키지여행은 데려가는 곳으로 가고, 보라면 보고, 먹으라면 먹고, 사진 찍으라면 찍고, 모든 것이 정해져 있어 이보다 편할 수가 없다. 다만 더 보고 싶어도, 가고 싶은 맛집이 있어도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최대 단점이다.







비용 문제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이 두 여행 스타일을 비교해 보자면 패키지여행이 자유여행에 비해 비용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다. 패키지여행은 단체여행의 개념이 있어 각종 입장료 할인과 대절 버스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 교통비 절감, 여행비용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반면 자유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지에서의 모든 활동이 100% 여행비용이 되기에 비용 측면만을 따졌을 때는 여행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추억단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와서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기억에 남는 여행은 자유여행인 것 같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찾아다녔기에 지명이나 음식 이름 등이 기억이 난다. 패키지여행은 그때그때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여행하기 때문에 여행 당시에는 알지만, 나중에 기억하려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여행을 위해 고생한 만큼 보람도 있고 추억도 있는 모양이다.

해답은?

이 글을 적으며 떠오르는 생각만을 나열한 것이기에 위에 적은 내용을 모든 여행에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장단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행은 분명 매우 개인적인 활동이다. 본인의 취향과 여행 성향, 여행에서 중요시하는 콘텐츠는 각 사람마다 매우 다르며 다양할 것이고, 여행비용도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딱 하나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 본인의 여행 일정에, 여행 예산에 맞춰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여행 스타일을 선택하여 여행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나름의 여행스타일을 정리해보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변덕스러운 산악 날씨

날씨에 따른 등산 준비는 이렇게!

봄이 오면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난감할 때가 많았던 적, 다들 있으시죠? 하지만 봄 날씨보다 변덕이 더 심한 것이 산에서 만나는 날씨가 아닐까요? 날씨가 맑을 거라는 말만 믿고 등산을 떠났다가 급격한 날씨 변화로 당황하신 적, 많으시죠? 특히 산에서 악천후를 만나면 지상에서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산악 날씨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경숙
11기 국민참여 기자단

변화무쌍한 산악 날씨

산에서는 기온 변화가 급격하다고만 알고 있는 산악 날씨. 이유는 뭘까요? 우선 산에서의 기온은 평지보다 낮죠. 고도가 100m 올라갈 때마다 약 0.6℃ 낮아진다는 건 상식! 모두들 알고계시죠? 또 강수량과 풍속은 지형마다 차이가 큽니다. 평지에서는 단순한 비와 눈이지만 산에서는 폭풍우, 폭설이 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산에 갈 때는 더욱 날씨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가 쨍쨍 난다고 방심하지 말고, 산에 오르기 전 기상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상황별 산악 날씨 대처방법

눈(Snow)

강원도 같이 산이 깊거나, 지형이 험악할수록 산에서 맞는 4월의 눈도 폭설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강원도에도 4월에 내린 눈이 무려 22.5cm 가 쌓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에서 눈이 위험한 이유는 우선 시야 확보가 힘들어 평소 다니던 산길도 잃어버릴 수 있죠. 특히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서 눈이 내린 바위를 밟을 경우, 미끄러져 발목을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사가 심하고, 높은 산에 갈 경우에는 번거롭더라도 아이젠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Wind)

한여름이라면 정상에 올라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는 것이 아마도 많은 등산객의 즐거움이 아닐까요. 하지만 봄에는 겨울바람의 기운이 남아있어 시원하기 보다는, 춥거나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상이 불안정할 때는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능선 위라든가, 봉우리, 험한 길에서는 몸을 낮춘 자세로 등산을 해야 하고, 굵은 나무기둥 등 잡고 버틸 수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강한 바람에 얇은 나뭇가지나 흙먼지가 같이 날아와 눈을 뜨기가 어렵거나, 다칠 수도 있으니 보호안경을 끼는 것이 좋습니다.



비(Rain)

비는 산에 갔을 때 가장 흔하게 만나게 되는 날씨입니다. 산에 오르기 전 방수가 되는 겉옷과 미끄럽지 않은 등산용 신발은 필수입니다. 비를 맞으면 체온이 떨어져 추위에 떨 수 있고, 장시간 비를 맞을 경우 저체온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비가 오면 되도록 빨리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돌이나 나뭇잎이 덮인 계단에서는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조심해서 걸어야 합니다. 또 여름철에는 뇌우를 동반한 구름이 자주 생겨 가끔 산에서 벼락이 쳐 사람이 다쳤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철로 만들어진 스틱이나 우산 등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고온 및 저온(Temperature)

산 아래에는 숲이 형성되어 있는 산이라도 정상에 가까워지거나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늘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산하는데 신경을 쓰느라 햇빛을 받아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 날씨가 좋을수록 등산 할 때는 모자와 색안경, 충분한 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온은 비와 바람, 그리고 낮아지는 기온이 원인이 될 때가 많은데, 경량의 긴팔 점퍼를 1~2개 준비해 가서 기온에 따라 수시로 입고, 벗으며 등산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몰(Sunset)

산은 평지보다 해가 빨리 지고, 금방 사방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등산을 할 때는 일몰시간을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되도록 일몰 전에 산행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는 손전등이나 등화구 등 불을 밝힐 수 있는 도구를 챙겨야 하며,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휴대폰 배터리도 충분히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등산 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날씨누리를 이용해 산악날씨와 일몰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산악기상예보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날씨가 좋아지는 봄! 안전한 등산 하세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저자 **빅터 프랭클** | 이시형 역 / 청아출판사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저자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겪었던 고통이 마음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에 대해서 쓴 책이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강제수용소에서 저자를 포함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절망의 틈 사이로 돋아난 새순

대부분 수용소에서의 생활이 절망적이고 좌절이 가득할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는 실제로 겉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수용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시멘트벽 갈라진 틈 사이에서 돋아나는 새순처럼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치 나무가 자라려면 숲이 있어야 하고, 강이 있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작은 생명은 자기만의 작은 흙덩어리 하나로도 생명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버티는지 객관화시키면서 지켜봤기 때문이다. 즉, 행복을 한끼 안전한 식사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인식한 것이다.

감옥과 일상의 공통점

감옥은 병원이나 군대와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규율과 강제에 따라야 하며,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 같다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되는 생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우울해지기 쉽다. 좀 더 넓게 보면 매일 같이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같은 길은 걷는 우리의 일상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반복과 강제가 배경에 있다. 출근하는 것, 버스 타는 것 일하는 것이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계단 역할을 못 한다면, 지금의 일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저자의 처참한 상황보다는 낫다는 비교우위로 해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쩌면 우리는 일상에서 주위와의 비교를 통해 울고 웃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다 비교대상인 것이 없어지는 순간 나는 거울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내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윤기한
예보분석팀

일상에서 작은 의미 찾기

저자가 처절한 일상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일상의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행복과는 다르게 일상에서 작은 의미를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제 수용소에서 배식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배식담당자가 죽을 퍼줄 때 수감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 배식한다는 사실에 감사와 고마움을 느낀다. 아는 사람에게만 죽 건디기를 더 퍼줄 것 같아 고개를 숙이고 배식하는 담당자에게서 느끼는 작은 공정성에서 그와 알지 못하는 저자가 수용소에서 살아야 하는 의미를 느끼게 된다. 저자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을 겪으면서 수용소에서 사람이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억압된 환경 속에서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걱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을 빼앗아 갈수 없다는 것이다.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자는 알게 된다.

이러한 수용소의 시련 속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삶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 라는 것이다. 삶의 의미에서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중단하고, 대신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 매일 매시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는 삶이란 행동과 태도에서 찾아야 하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지금 내가 키보드 치거나 걷거나 이야기 하는 것 자체에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이 책을 왜 살아야 하냐는 질문을 가슴에 담고 사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어서 와, 이탈리아는 처음이지?

첫 유럽여행은 '이탈리아'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내가 즐겨보던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에 출연한 외국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휴양지로 이탈리아를 뽑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유럽여행을 이탈리아로 결정했다.





이은진
강원지방기상청 관측과

로마와 베네치아, 그리고 기후변화

자유여행 첫 스타트로 영화 〈로마의 휴일〉에서 오드리 헵번이 젤라또를 먹으며 거니는 장면으로 유명해진 스페인광장으로 정했다. 지금은 문화재 보호 차 광장 안에서는 젤라또를 먹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젤라또를 먹었으면 저런 법이 생겼나 짐작이 됐다. 조금 걷다 보면 트레비 분수가 나오는데, 관광객들은 분수를 등진 채 동전을 던지고 있었다. 동전이 들어가면 로마로 다시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있어 나도 한 번 던져보았다. 실제로 분수에 던진 동전들은 에이즈 환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이동한 도시는 베네치아인데, 물의 도시답게 길옆으로 물이 굉장히 가깝게 흘렀다. 이 아름다운 도시는 기후변화에 취약하여, 21세기 말 홍수와 해안 침식으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길 것이라는 연구가 있다. 도시가 서서히 잠길 수 있다니,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다시금 느꼈다. 배를 타고 이동한 곳은 부라노섬인데, 운하를 따라 늘어선 알록달록한 건물들로 유명하다. 집들이 알록달록한 이유는 예로부터 이곳이 안개가 심해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올 때 집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가 산마르코광장으로 향했다. 이곳의 종탑에서는 베네치아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탁 트인 전망에 그 누구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내려오는데, 광장 전체가 음악 소리로 가득했다. 노랫소리를 따라 들어간 곳은, 300년 전통의 플로리안 카페이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연주자들이 낭만적인 음악을 연주해주는데, 마치 영화 라라랜드의 한 장면에 들어온 기분이 들었다.

베네치아





산마르코광장(베네치아)

그림사기꾼과 <냉정과 열정사이>

예술가들의 도시인 피렌체에서도 우피치 미술관을 관람하고, 영화 〈냉정과 열정사이〉에서 주인공들이 10년 만에 다시 만났던 장소인 두오모로 향했다. 가는 길에 친구가 나에게 혼잡한 관광지에서 바닥에 그림을 깔아놓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친구가 그림사기꾼들의 그림을 밟아버렸다. 처음엔 밟은 줄도 몰랐는데, 험상궂은 사람이 달려와서는 발자국 보라며 돈을 요구했다. 그림 파는 것도 불법인 것을 아는 우리는 무시한 채 걸어갔는데도 계속 쫓아와서, 단체 관광객 사이에 숨어야 했던 웃지 못할 상황도 있었다.



바티칸미술관(바티칸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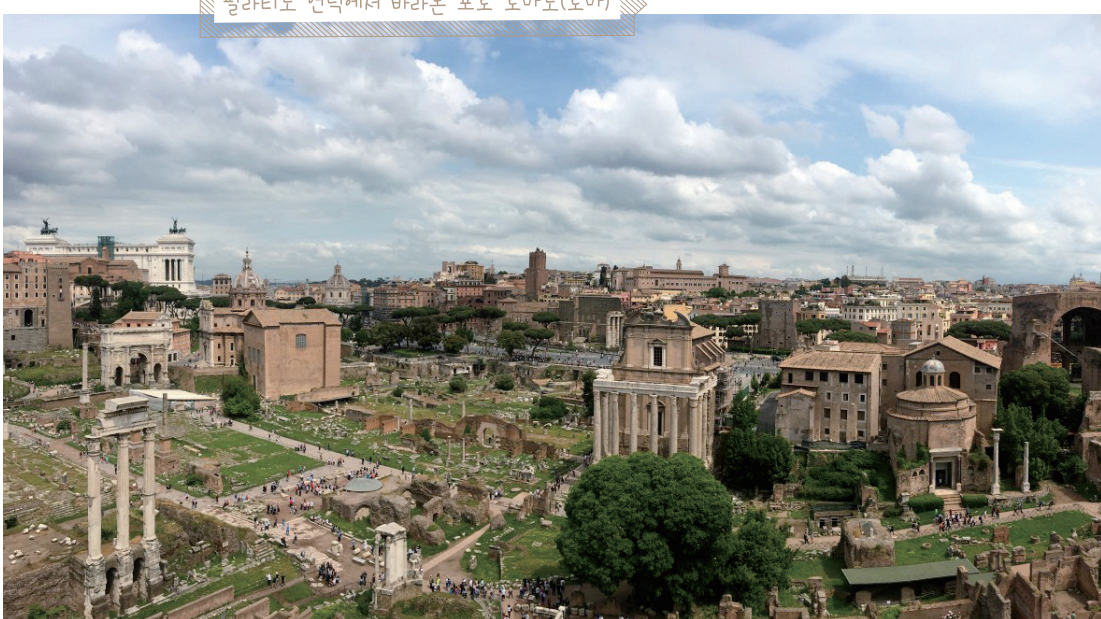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다시금 로마로 돌아와 콜로세오로 향했다. 5만 5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원형경기장이 공공건축물이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조금 걷다 보면 약 천 년간 로마의 정치·경제·사회·종교의 중심지였던 포로 로마노가 나오는데, 필라티노 언덕에 올라가 그 천년의 역사를 바라보니, 뼈대만 남았음에도 웅장함이 느껴졌다.

내가 로마에서 가장 좋아했던 길인 코르소 거리는 캐주얼 브랜드와 보세 매장이 늘어선 거리인데, 여행자들로 활기 넘치는 분위기에, 베네치아광장에서 포폴로 광장까지 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는 탁 트인 길에 마음도 시원해진다. 옛 로마의 관문인 포폴로 문을 걷는 것을 마지막으로 여행을 마무리 지었다. 자유여행을 하다 보면 신나는 일도 많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가기 전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 미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말했다. 그런 것들도 여행의 일부라고. 고개가 끄덕여졌다.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여행의 일부가 아닐까?

피렌체



필라티노 언덕에서 바라본 포로 로마노(로마)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모바일기상관측차량'

생방송 리포터로 활동하면서 매일 새로운 현장으로 달려가 많은 것을 눈과 가슴에 담으며 살아왔다. 지난 3월에 촬영한 '모바일기상관측차량'방송은 기상현상에 무심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만드는 특별한 촬영이었다.





권소완
KTV 국민방송 리포터

위험기상 현상과 나

우박을 처음 맞아본 초등학생 때가 생각난다. 비도 눈도 아닌 딱딱하고 거친 무언가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경험은 나를 비롯한 또래 아이들에게 생소한 충격이었다. 나는 27년 평생을 수도권 도심 내에서 거주하면서 '이상기상 현상'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흙밭을 뒹굴기보단 실내에서 놀며 자랐고 이상기상 현상은 물론 큰 태풍도, 지진도 겪어보지 않았다. 각종 재난, 재해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민들과 어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지만, 그 뒤에 숨겨진 종사자들의 피눈물과 관계 부처의 헤아릴 수 없는 노력까지 생각해보지는 못했다.

최근 들어 폭염과 한파가 이어지고 지방의 도심 내에서도 지진이 일어나는 등 피부로 와 닿는 이상현상들을 느끼며 뒤늦게 나의 무심함이 부끄러워졌다. 고작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약간 더워지고 추워졌다고 불평하는 꼴이라니. 누군가에게 기상 현상이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고, 1년을 바친 농작물을 몽땅 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었다.

모바일기상관측챠랑과의 특별한 만남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촬영은 내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그동안 방송국의 리포터로 활동하면서 정부 부처의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는 현장으로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는 각종 이상 기후에 대비하고 재난, 재해 현장으로 출동하는 '모바일기상관측차량'을 소개하기 위해 강릉으로 향했다. 강릉역 앞에 도착하자 국립기상과학원의 '모바일기상관측차량'이 한눈에 들어왔다. 흔히 볼 수 있는 SUV 차량 위에 각종 기상관측 장비가 얹어져 있는 모습이 독특해 보였다. 알고 보니 국립기상과학원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모바일기상차량을 특수 제작해 2013년부터 활용하고 있었다.





차량 내부에는 기상관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와 노트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새삼 기술의 발전을 느끼며 촬영장소인 강원지방기상청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만난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센터 직원이 설명해주는 모바일기상관측차량의 역사와 필요성, 이상 기후 현상을 감시해야만 하는 이유를 들었다.

최근 한반도 각지에서 지진, 용오름 등 이상 기후 현상이 관측되고 있지만 특히 강원도 지역의 폭설과 이상 기후 현상에 농민들이 겪는 피해가 크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생방송 시작!

모바일기상관측차량에서 관측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라디오존데'를 볼 수 있었다. 라디오존데는 풍선에 기온, 습도, 기압 등의 기상관측 센서와 무선송수신기를 매달아 띄워 상층의 일기 상황을 관측한다고 한다. 커다란 고무풍선이 두둥실 떠오르는 모습은 태어나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모바일기상관측차량의 구동 장면과 라디오존데가 떠오르는 모습까지 사전 스케치 화면에 담자 곧 생방송 시간이 찾아왔다. 국립기상과학원의 연구원께서는 나의 다양한 질문에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다. 그렇게 10분의 시간이 지나 방송을 무사히 마쳤고, 국민들의 안전과 정확한 기상예보를 위해 불철주야로 근무하는 강원지방기상청 예보실 현장을 눈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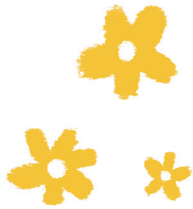
또 만난다면 반가울 모바일기상관측차량

이번 방송은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센터와 강원지방기상청 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편안한 마음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서 완성도 높은 방송이 되었다. 특히 많은 사람이 심혈을 기울여 변화무쌍한 날씨를 감시하고 기상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 우연이라도 길에서 모바일기상관측차량을 만난다면 든든하고 반가운 마음이 앞설 것 같다.

꽃은 과정으로 피어난다

어느덧 5월이다. 5월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으며 아름다운 봄꽃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라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좋은 계절엔 최대한 밖에 나가 날씨를 만끽해주는 게 인지상정. 따스한 봄 햇살을 느끼러 집 앞으로 산책을 나가니 역시 우리 아파트 단지에도 오색찬란한 꽃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홍지화
TV조선 기상캐스터

찬란한 시련 뒤 향기로운 꽃

매년 보는 꽃들이지만 전에는 그저 "예쁘다!" 하며 꽃 자체의 아름다움만 감상했다면 이번엔 왠지 '이 꽃들이 이렇게 활짝 피어나기까지의 과정은 어땠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봄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꽃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지난겨울 차가운 땅속에서 눈과 영하의 추위를 견뎠을 것이고, 온 힘을 다해 땅 밖으로 나와 새싹을 틔우고 꽃망울을 터뜨리기까지 줄기가 꺾일 뻔한 위기도 있었을 것이다. 꽃을 피운 이후에도 이를 시샘하는 '꽃샘추위'를 견뎌냈기 때문에 탐스러운 자태를 유지하고 향긋한 향기를 낼 수 있는 게 아닐까. 꽃들이 견뎌온 그 힘겨운 스토리를 생각해보니 그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꽃은 과정으로 피어난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우리의 인생도 꽃과 마찬가지인 것 같다. '나'라는 꽃이 어떤 꽃인지는 그동안 얼마큼 궂은 날을 견뎌왔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마음의 꽃샘추위

힘들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현지에서 직장까지 얻었는데 갑자기 비자에 문제가 생겨 낭떠러지로 추락하듯 백수가 됐던 적이 있었다. 그 기회에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왔던 '아나운서'라는 꿈에 도전하게 되었지만, 화려한 스펙이 넘쳐나는 몇 백 명의 지원자들 가운데 1차 서류 심사에서 낙방하기 일쑤였다. 어쩌다 서류에 합격하더라도 실기 시험에서 발음이 하나라도 틀리면 '역시 미국에서 와서 발음이 좋지 않네'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딱 좋았다. 그래서 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했고, 도움이 될만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 노력했다. 그렇게 원했던 기상캐스터가 된 이후에도 종종 마음의 꽃샘추위가 찾아온다. 방송을 하며 내가 준비한 만큼의 역량을 다 보여주지 못할 때도 많고 여느 직장인들처럼 무기력해질 때도 있다.





언젠가 불어올 봄바람

꽃샘추위는 꽃을 더 오래가게 한다. 그리고 꽃샘추위가 지나면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는 봄바람이 불어온다. 최근에는 기상청에서 주최한 '언론인 기상 강좌'가 나에게 그랬다. 이런저런 일로 자존감이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정확한 기상정보를 위해 매번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기상청 관계자들을 보니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감사했다. 다른 기상캐스터들을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얻어온 시간이었다. 어쩌면 우리의 봄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5월의 따스한 햇살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따스한 봄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기도해본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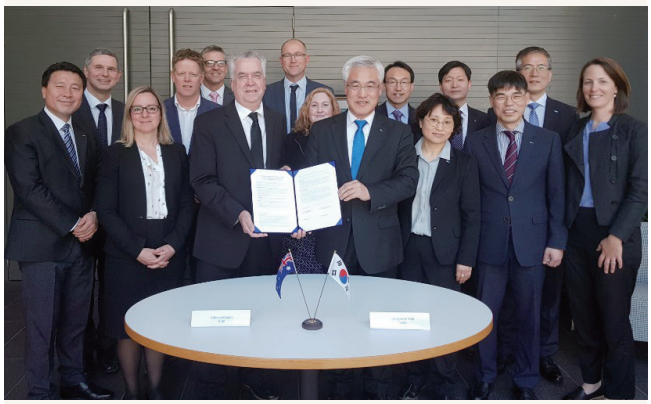
제36회 기상기후사진전 전시회 개최(4월 1일)

4월 1일(월)부터 4월 8일(월)까지 서울역사 3층 광장에서 '제36회 기상기후사진전' 전시회를 개최했다. 사진 전시 외에도 크로마크 촬영, 눈꽃모양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실시간 기상 알림서비스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포럼 개최(4월 8일)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장 인재근 국회의원, 언론 및 민간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간 기상 알림서비스(Push App)'의 개발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제9차 한-호주 기상협력회의(4월 9일~4월 14일)

김종석 기상청장 등 한국대표단은 호주기상청을 방문해 기후예측자료 교환 및 공유, 지구대기감시, 차세대 위성영상 분석기술 등에 대한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미래 자연재난 관리 역량 강화 토론회 개최(4월 23일)

국립기상과학원과 강원지방기상청은 재난 분야별 효율적인 기상지원 및 맞춤형 기상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관 간 모바일 기상관측차량을 활용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Photo News



기상청–한림대학교 업무협약 체결(4월 24일)

한림대학교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인재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도국 인재 양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기상청장, 강원도와 지진대응 협력방안 논의(4월 24일)

김종석 기상청장은 강원도청을 방문해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지진 및 산불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상 분야 드론 활용 워크숍 개최(4월 24일)

드론 개발 및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상 분야 드론 활용에 반영하고자 국방부, 공군기상단,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활용 워크숍을 개최했다.



기상사업자 간담회 개최(4월 26일)

기상기업 및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기상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상청과 기상사업자 간 효율적 정보교환과 정책협의 등 소통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당신의 날씨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도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를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kmanews@korea.kr에 5월 25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온누리상품권(1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꼭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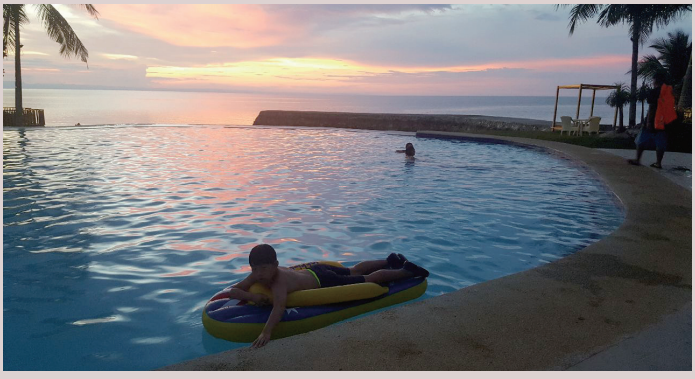
유의 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현주

봄비가 내리고 난 후 폐교 운동장 가운데에는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민들레가 꼿꼿하게 자리 잡고 꽃을 틔운 모습이 대견합니다. 민들레 하얀 홀씨를 날릴 때까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박성진

가족여행으로 행복했던 순간,
석양마저 아름다웠습니다



김진

차갑게 얼었던 하늘도
녹여버린 어느 봄날의 저녁.



우정렬

역시 샛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어야 봄이 실감 납니다. 유채꽃밭을 산책하면서 독특한 향기와 냄새,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곳곳에서 사진 찍는 광경도 볼 수 있답니다. 청춘남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나와 봄을 맘껏 맛본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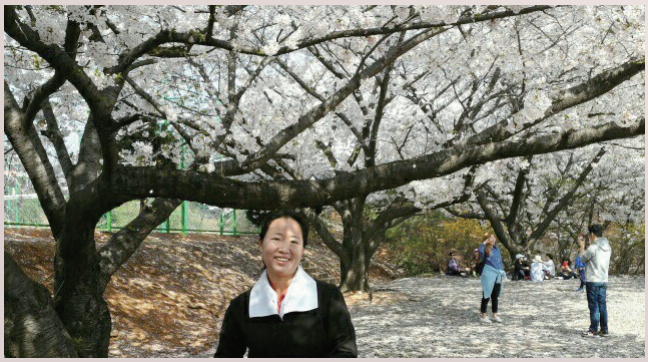
오영주

부산 화명동 공원에 핀 튤립은 저절로 찬사가 나올 만큼 아름답고 멋지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튤립 길을 손 잡고 걸으니 세상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합니다.



장성빈

봄비가 내린 후, 벚꽃나무에 초록잎이 돋아났네요.
이 초록 잎들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걸까요, 끝을 알리는 걸까요?



최은순

활짝 핀 벚꽃나무 앞에서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듯 행복했습니다.



김용산

화창한 봄날, 하나밖에 없는 늦둥이 우리 딸이 꽃밭에서 환하게 웃으면 세상 근심걱정을 잊을 만큼 행복을 느낍니다.

원고 기고 방법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 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봄의 레시피

보드라운 구름, 한 스푼
나른한 햇살, 두 스푼
달달한 꽃내음, 두 방울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 콸콸콸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잎의 기분, 많이

잘 저어 흔들면

하늘에 어느새 떠오르는
색색깔 무지개 같은 봄!

사진 : 고수경, 〈층층구름과 채운〉 2017 기상사진전 입선
글 : 조아라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일하는 즐거움·쌓이는 행복~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5월에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지급!"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 재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자

※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참조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9. 5.1.~ 5. 31.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인터넷)
서면신청

지급시기

심사를 거쳐 **9월 지급** 예정

※ 심사과정에서 지급제외 될 수 있음

☎ 국번없이 126번 [❷번 누른 뒤 ❹번]

검색창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제14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 공모



기상정보를 기업(관) 경영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내 기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관), 개인을 발굴·포상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기상산업 신사업·정책개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기상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14회 대한민국 기상산업대상」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모기간

· 2019년 4월 1일 부터 7월 31일 까지

공모자격

· 기상산업 발전에 공헌한 기업(관) 및 개인

공모분야

Ⅰ. 기상정보 활용 부문

· 기상정보를 기업(관)경영에 활용하여 재해예방 및 경영을 혁신한 경우

Ⅱ. 기상산업 진흥 부문

· 기상·기후 분야의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단체에서 우수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통해 기상산업 발전에 기여한 경우

Ⅲ. 아이디어 제안 부문

· 기상산업 신규서비스 및 신사업 발굴 또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등에 대한 우수 아이디어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9년 7월 31일 16: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 (promotion@kmiti.or.kr)

※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 (www.kmiti.or.kr) 참조

시상내역

시상등급	시상부문	시상훈격	점수	시상내용
대상	기상정보 활용 또는 기상산업 진흥 부문	국무총리상	1	상장 및 부상 500만원
금상	기상정보 활용부문	환경부장관상	1	상장 및 부상 300만원
	기상산업 진흥부문		1	상장 및 부상 300만원
은상	기상정보 활용부문	기상청장상	2	상장 및 부상 각 100만원
	기상산업 진흥부문		2	상장 및 부상 각 100만원
동상	기상정보 활용부문	기상청장상	2	상장 및 부상 각 50만원
	기상산업 진흥부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상	2	상장 및 부상 각 50만원
최우수상	아이디어 제안부문	기상청장상	1	상장 및 부상 200만원
우수상		기상청장상	1	상장 및 부상 100만원
장려상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상	2	상장 및 부상 각 50만원

※ 시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문의처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장지원실
Tel. 070-5003-5224 / E-mail. promotion@kmiti.or.kr

기상청 KMI 한국기상산업기술원 Korea Meteorological Institute